

“가자가자 용궁가자 ~
내손잡고 헤엄쳐서 용궁가자”

작품소개

별주부전 가운데 자라가 토끼를 찾아 물 밖으로 나와 여러 숲속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용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창작 국악 등요, 민요를 포함하여 여러 숲속 동물들이 연주하는 우리나라 악기에 대해서 배우고 전통연희인 버나돌리기와 응용미술인 샌드아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2023 풍류와 모래로 전하는 아름다운 화성”은 전통 음악과 함께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환상적인 샌드아트를 통해 화성의 8경인 남양항라, 용건백설, 용주범종, 제부모세, 남양성모성지, 제암리 기념관, 입파홍암, 궁평낙조를 여행하며 풀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출연진 소개

- ❖ 기획·판소리 - 이혜진
- ❖ 샌드아트 - 김안나
- ❖ 자라 - 박경은
- ❖ 토끼 - 최민경
- ❖ 개구리1) 가야금 - 박애진
- ❖ 개구리2) 가야금 - 이지영
- ❖ 여우1) 해금 - 이연재
- ❖ 여우2) 해금 - 장은송
- ❖ 기린1) 대금 - 박수현
- ❖ 기린2) 소금·대금 - 공경환
- ❖ 돼지) 피리 - 성상운
- ❖ 호랑이1) 버나·타악 - 최철영
- ❖ 호랑이2) 타악 - 임형묵



「2023 예술창작 협업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